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

배경의¹ · 이경혜² · 김영희³ · 김 수⁴ · 김희경⁵ · 김지현⁶

¹가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이화여자대학교 건강과학대학 간호과학부 교수, ³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⁴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⁵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건강산업연구소 연구원, ⁶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Bae, Kyung Eui¹ · Lee, Kyung Hye² · Kim, Young Hee³ · Kim, Sue⁴ · Kim, Hee Kyung⁵
Kim, Ji Hyun⁶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Gimhae

²Professor, College of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³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uk University, Gyeongju

⁴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⁵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Health Industry Research Institute, Gongju

⁶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6 to December 30, 2008. Marriage-immigrant women (n=186) were recruited in G Province, C Province and P cit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SPSS 14.0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mean score for child-rearing practices was 40.61 ± 6.67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aring practices by nationality, and Korean language ability. The mean score for parenting efficacy was 67.67 ± 12.14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by age, nationality, marital period, age of first child and Korean language 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r=.227, p=.002$). **Conclusion:** In this study, marriage-immigrant women showed a moderate level of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Because child-rearing is mainly the mother's role in the family, knowledge, attitudes to child-rearing and parenting efficacy of mothers influence child-rearing practices and these then, affect children's health. Therefore child-rearing educational programs for marriage-immigrant women should be developed to support the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and improve parenting efficacy.

Key words: Child rearing, Marriage, Women, Parenting, Self-efficacy

서론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전체 결혼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

는데 반해 국제결혼은 2000년 3.7%에서 2007년 11.1%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75%를 차지하며, 2008년까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07,799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08).

주요어 : 자녀양육, 결혼, 여성, 양육, 자기 효능감

*본 논문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소규모 연구회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E00083).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s of 2008 (E00083).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Ji Hyun

Department of Nursing, Hanseo University, 360 Daegok-ri, Haemi-myeon, Seosan 356-706, Korea
Tel: 82-41-660-1087 Fax: 82-41-660-1087 E-mail: myhonors@hanseo.ac.kr

투고일: 2010년 2월 23일 1차수정: 2010년 7월 8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14일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도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세 이하 인구 중 21%를, 신생아 중에는 3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ee, Han, Jung, & Kim,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외국인 노동자나 단기 체류자와는 달리 한국 사회의 일원이자, 가족건강과 자녀 양육을 책임질 어머니이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가 제공하는 돌봄의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Bowlby, 1982). 양육은 시간, 문화, 공간에 따라 변화하며, 양육은 문화적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아동에 대한 견해에 따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Lee, 1998). 이러한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어머니 자신의 경험, 교육,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배우고 학습되어진다. 즉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는 자신의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모국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이주국)를 절충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의사소통 장애, 모국 문화에 대한 차별 등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Koniak-Griffin, Logsdon, Hines-Martin, & Turner, 2006).

Bigner (2005)는 자녀양육 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문화적 유형, 부모의 성격 유형,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양육효능감, 역할 모형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양육효능감이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역할수행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며, 특히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지닌 심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요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지적 변인 중 하나이다(Choi & Chung, 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양육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hn, 2000; Han, 2007; Leem & Hyun, 2002). 즉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양육행위에 대한 주요한 지표가 되며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실태조사에서도 의사소통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두 번째는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5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의 경우 영유아의 건강관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양육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 양육 지지체계의 부족과 함께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한 정보습득 및 의료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Kim, 2006; Lee, 2007; Seol et al., 2005).

이렇듯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어려움과 갈등을 토대로 이주여성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양육관련 국내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태도(Hyun, 2008; Ji, 2007),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Han, 2008; Kim, Kim, & Shin, 2007),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Kim, 2008; Han, 2007) 등 이주여성의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있을 뿐, 실제 이주여성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와 관습이 다른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다음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결혼이주여성의 양육 행위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 아동이 어떻게 성장 발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국 사회를 예측하고 이를 위한 건강한 양육행위 교육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구체적인 자녀 양육 행위를 알아보고,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양육행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며, 그로 인한 양육효능감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여 건강한 양육행위와 이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구체적인 양육행위에 있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파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상호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을 분석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 효능감을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연령, 거주기간, 지역별 할당을 통한 확률표집이 권장되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각 지역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입국하여 전국적인 분포와 그에 따른 인구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존재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집단과 가족집단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이주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편의추출방식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역 건강검진행사, 교육행사, 문화행사에 참석한 결혼이주여성과 지역보건소에 등록된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achnick와 Fidell (2007)은 상관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N \geq 50 + 8m$ (N =필요한 대상자의 수, m =독립변인의 수)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았으므로 독립 변인수 m 은 1이며 필요한 대상자의 수 $N \geq 58$ 이다. 총 190부의 수집된 자료에서 입력과정 중 자료가 불충분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86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이용되었다.

연구 도구

양육행위

어머니 양육행위 측정을 위해서 양육행위에 대한 기존 도구에 대한 고찰(Flores, Abreu, & Tomany-Korman, 2005; Kim, Kang, Yun, & Kwon, 2007; McLearn, Minkovitz, Strobino, Marks, & Hou, 2006)을 통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로 건강관리, 영양, 의복, 안전, 발달, 교육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척도를 구성하여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거쳤다. 각각의 번역된 예비척도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결혼이주여성 각각 2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안면타당도를 측정한 후 어휘와 문장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수정작업을 거쳤으며, 간호학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Content Validity Index (CVI) 3.0 이하의 문항은 삭제하였고, 누락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문항을 수정하여 총 52문항을 구성하였다. 하위영역으로 건강관리 20문항, 영양 8문항, 의복 6문항, 안전 5문항, 발달 7문항, 교육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실제 행위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가 실제 아이를 돌보면서 현재 하고 있거나 했었던 행위는 '예'를 그렇지 않은 행위는 '아니요', 자녀의 발달단계상 해당되지 않아 실천여부를 알 수 없는 행위는 '해당없음'을 응답하

게 하여 추측으로부터 오는 편견의 오류를 배제하였다. 올바른 양육행위인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5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양육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 Kuder-Richardson 20은 .86이었다.

양육 효능감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Choi과 Chung (2001)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38문항을 바탕으로 요인 부하량 .50 이하의 문항을 모두 제외시키고 Lee (2004)가 재구성한 18문항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Lee (2004)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하위영역은 일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으로 총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92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08년 5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단계는 G도에서 실시한 결혼이주여성가족 지원 행사에 연구자들이 양육상담을 위한 부스를 설치하고 건강검진과 1:1 양육상담을 실시하면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법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단계는 G도 간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자가 1:1 면담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3단계는 각시도 보건소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방문간호사 3인을 훈련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게하고 서면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1:1 면담법과 자가 작성법을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한국어 읽기와 쓰기가 어려운 대상자는 자신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 중 대상자가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중단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되며 익명이 보장됨을 강조하였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은 기술통계 방법으로 제시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위와 양육 효능감은 t-test, ANOVA 분석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하였다.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하부영역별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결혼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 정착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로 총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9.7세였으며,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81명(43.5%), 필리핀이 32명(17.2%), 중국이 28명(15.1%), 기타 일본, 캄보디아, 태국이 45명(24.2%)이었다. 결혼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 있는 여성이 130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 4.7년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은 72명(38.7%)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수는 1명이 120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rriage-Immigrant Women (N=18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or Mean	% or SD
Age (yr)	20-24 yr	64	34.4
	25-30 yr	46	24.7
	≥31 yr	76	40.9
Nation	Vietnam	81	43.5
	Philippine	32	17.2
	China	28	15.1
	Others (Japan, Cambodia, Thailand)	45	24.2
Marital period (yr)	1-5	130	69.9
	6-10	36	19.4
	≥11	20	10.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7	14.5
	Middle school	41	22.0
	High school	72	38.7
	Collage or university	46	24.7
Children	1	120	64.5
	2	46	24.7
	≥3	20	10.7
Age of first child	1-12 M	56	30.1
	13-36 M	50	26.9
	37 M-7 yr	36	19.4
	≥8 yr	40	23.7
Experience of parenting	Yes	73	39.2
	No	113	60.8
Experience of parenting education	Yes	64	34.4
	No	122	65.6
Korean language ability	2-10	42	22.6
	11-14	88	47.3
	15-20	56	30.1

첫 자녀의 나이는 1-12개월이 56명(30.1%), 13-36개월이 50명(26.9%)으로, 36개월 미만인 대상자가 106명(57%)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자 중 113명(60.8%)은 결혼 전 양육 경험이 없었으며, 양육교육경험은 122명(60.8%)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스스로가 생각하는 한국어 실력은 최하 1점, 최대 5점으로 측정하였는데, 1-10점이 42명(22.6%), 11-14점이 88명(47.3%)으로 가장 많았고, 15-20점은 56명(30.1%)이었다. 각 영역별 평균은 듣기가 3.23 ± 0.99점, 말하기가 3.04 ± 0.97, 읽기는 3.13 ± 0.97, 쓰기는 2.89 ± 0.99점으로 듣기와 읽기 보다는 말하기와 쓰기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Table 1).

대상자의 양육행위와 양육 효능감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의 평균점수는 40.6 ± 6.7점이었 다. 하부요소에 따라 살펴보면, 건강관리가 긍정적인 양육행위 실천율이 8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안전에 대한 실천율이 80.2%, 영양이 77.1%, 발달이 76.7%, 교육이 73.3%, 의복이 63.5% 순이었다.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은 평균점수가 67.67 ± 12.14점이었으며, 하부요소 중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15점 중 12.14 ± 2.0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의사소통(11.53 ± 2.46점), 훈육(11.53 ± 2.31점)이었으며, 일반적인 양육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30점 중 22.06 ± 4.31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 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15점 중 10.41 ± 2.51점으로 다른 능력에 비해 낮았다(Table 2).

양육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관련 행위에서 ‘아동의 질병발생 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찰받는다(98.4%)’, ‘예방접종을 정해진 시기에 한다(93%)’ 등은 실천율이 높은 반

Table 2.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Self-Efficacy (N=186)

Domain	Items	Mean	SD	% of positive responses
Health	20	16.85	2.75	84.6
Nutrition	8	6.17	1.68	77.1
Clothing	6	3.81	0.95	63.5
Safety	5	4.01	1.30	80.2
Development	7	5.37	1.72	76.7
Education	6	4.40	1.53	73.3

Total child rearing practices	52	40.61	6.67	78.1

General	6	22.06	4.31	-
Health	3	12.14	2.09	-
Communication	3	11.53	2.46	-
Learning guide	3	10.41	2.51	-
Moral training	3	11.53	2.31	-

Total parenting efficacy	18	67.67	12.14	-

면, '사탕이나 탄산음료를 먹이지 않는다(55.9%)', '하루 3회 치아와 잇몸을 닦는다(54.8%)', '정기적으로 치아를 살피고 필요시 치과에 간다(59.1%)'와 같이 치아건강에 대한 실천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81.7%)', '복통이나 몸의 통증 시 손으로 문질러준다(81.2%)'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육행위에 대한 실천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으며,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손을 씻도록 한다(81.2%)', '아이 이부자리는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린다(81.2%)', '상처가 나면 소독한다(84.4%)' 등의 예방위생에 관한 실천율도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영양관련 양육행위에 관한 문항을 살펴보면, '인스턴트 식품을 먹이지 않는다(51.1%)'가 실천율이 가장 낮았으며, '이유식을 만들어 먹인다/먹였다(75.8%)'도 대상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었으며, '과일이나 야채를 챙겨서 먹인다(87.6%)'로 영양관련 문항 중 가장 실천율이 높았다. 의복에 대한 행위는 '회용 기저귀를 사용'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6.1%였으며, 면제품 의복과 활동이 편한 의복 선택에 대한 실천율 각각 91.4%, 97.8%로 높았으나, '계절에 따른 아동의복 결정이 어렵다'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7명(41.4%)으로 낮았다. 안전에 대한 실천율 중 가장 낮았던 문항은 '부엌 싱크대나 서랍을 열지 못하도록 잠가 둔다(66.7%)'와 '아이를 안고 차의 조수석에 타지 않는다(69.4%)'로 생활안전에 대한 실천율이 낮았다. 아동의 발달증진을 위한 양육행위 실천율 중 가장 낮았던 문항은 '아이가 TV나 라디오를 하루 2시간 이상 보지 않도록 한다(61.3%)'였으며,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 준다(69.9%)'도 낮았다. 교육은 의복 다음으로 실천율이 낮았던 영역으로 문항 중 '자국어로 언어 훈련을 한다(59.7%)'와 '자녀의 학교 수업 준비를 도와줄 수 있다(62.4%)'가 가장 낮았다(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위를 살펴본 결과 출신국가($F=4.443$, $p=.005$)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결과 베트남과 기타(캄보디아, 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보다 양육행위 실천율이 낮았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어 실력에 따라 양육행위($F=5.782$, $p=.004$)와 양육효능감($F=4.199$, $p=.016$) 모두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실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군은 실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군보다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나이($F=6.395$, $p=.002$), 출신국가($F=2.951$, $p=.034$), 결혼기간($F=5.223$, $p=.006$), 첫 아이 연령($F=2.840$, $p=.039$)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이는 20-24세군이 31세 이상군보다 효

능감 점수가 높았으며, 출신국은 베트남여성이 기타 국가 여성들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결혼기간은 1-5년인 여성이 6-10년 된 여성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첫 아이 연령에 13개월에서 36개월인 여성이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다(Table 4).

대상자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r=.227$, $p=.002$)를 분석한 결과 하나 이상의 하부요인들과도 유의한 상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효능감 중 일반적인 양육능력은 양육행위 중 발달과 상관관계($r=.162$, $p=.028$)가 있었으며,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건강($r=.156$, $p=.033$), 영양($r=.195$, $p=.008$), 안전($r=.163$, $p=.039$), 발달($r=.166$, $p=.024$), 교육($r=.163$, $p=.026$)과 의사소통 능력은 의복을 제외한 모든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학습지도 능력은 영양($r=.183$, $p=.012$), 발달($r=.218$, $p=.003$)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육능력은 건강($r=.211$, $p=.004$), 발달($r=.163$, $p=.026$)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 점수는 52점 중 평균 40.6 ± 6.7 점으로, 긍정적인 양육행위 실천율은 7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Jeong (2009)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정서적 지지, 활동과 휴식, 질병예방, 의복착용, 영양, 청결과 위생 영역별로 영유아 건강증진행위를 조사한 결과 80%의 실천율을 보이는 것과 값이 비슷했으며, 우울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안전, 발달, 교육 영역의 양육행위 실천율 69.1% (McLearn et al., 2006) 보다는 높았고, Flores 등(2005)의 인종별 양육행위 결과 79.8%와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전반적인 양육행위 실천율은 다른 어머니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문항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Jeong (2009)의 연구에서는 의복착용 영역이 가장 높았으나, 결혼이주여성은 의복영역이 가장 낮았다. 이는 인간은 개인 안에 내재된 요인들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성인인 경우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지키려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Tseng & Fuglini, 2000), 우리나라와는 기후조건이 다른 지역(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경우가 많은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4계절이 있어 변화하는 기후 조건에 따라 아동의 옷을 바꿔 입히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

Table 3. Child Rearing Practices

(N=186)

Item	n (%)	
Health	Keep tummy warm	152 (81.7)
	Keep child away from person with infectious condition	174 (93.5)
	Try to keep child away from cigarette smoke	173 (93.0)
	When in pain, rub tummy or body part with palm	151 (81.2)
	Cleanse & disinfect any wounds	157 (84.4)
	When sick, take child to hospital or health center	183 (98.4)
	Make sure child gets appropriate immunizations	173 (93.0)
	When I return home I wash my hands	165 (88.7)
	When we return home I wash my child's hands	151 (81.2)
	I wash my hands before meals	174 (93.5)
	I wash my child's hands before meals	164 (88.2)
	I ventilate/air out the room once a day	173 (93.0)
	I air out/dry my child's mattress in the sun regularly	151 (81.2)
	I clean/sanitize my child's bottle after each feeding	155 (83.3)
	I cut my finger nails at least once a week	178 (95.7)
	I wash my child's body at least once a day	167 (89.8)
	I change my child's clothes at least once a day	178 (95.7)
	I do not feed my child candy or soda	104 (55.9)
	I brush my child's teeth 3 times a day	102 (54.8)
I check my child's teeth and take him/her to the dentist regularly	110 (59.1)	
Nutrition	I breastfed my child/I am breast feeding	145 (78.0)
	I make sure my child eats three meals a day	162 (87.1)
	I make sure my child eats fruits and vegetables	163 (87.6)
	I make my child eat a variety of foods	150 (80.6)
	I do not give my child instant foods	95 (51.1)
	When my child was learning to eat solid foods I fed my child food prepared at home	141 (75.8)
	I increase the amount of milk according to my child's need	150 (80.6)
I do not feed my child too quickly	142 (76.3)	
Clothing	I use disposable diapers*	30 (16.1)
	I dress my child in soft cotton clothes	170 (91.4)
	I dress my child in comfortable clothes	182 (97.8)
	I buy my child's clothes myself	144 (77.4)
	It's difficult to decide on what kind of clothes my child needs according to the changing seasons*	77 (41.4)
Safety	I dress my child in clothes from relatives or friends	106 (57.0)
	I do not sit in the front seat holding my child	129 (69.4)
	I tell my child not to put metal items in the electric outlet	163 (87.6)
	I lock kitchen cabinets so my child cannot open them	124 (66.7)
	I do not put dangerous items such as a hot stove, hot kettle, or knives near my child	168 (90.3)
Development	I advise my child of dangerous things or places	161 (86.6)
	I encourage my child to play actively	152 (81.7)
	I did/do physical exploration activities with my child such as making & opening fists and shaking head sideways	150 (80.6)
	I talk to my child daily while working at home	154 (82.8)
	I play with my child every day	157 (84.4)
	I read to my child every day (in Korean or mother tongue)	130 (69.9)
	I limit watching TV or videos to less than 2 hours a day	114 (61.3)
I follow at least 3 routines (eating meals at same time, going to bed at same time, regular nap times, etc.)	142 (76.3)	
Education	I teach my child Korean words, such as Umma, Appa, Mamma, etc.	165 (88.7)
	I teach my child words in my mother tongue	111 (59.7)
	I have plans to teach my child Korean	144 (77.4)
	I have plans to teach my child my mother tongue	139 (74.7)
	I am/will send my child to kindergarten or childcare center	142 (76.3)
I can help my child prepare for school/do homework	116 (62.4)	

*Negative item.

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경제권이 있는 한국어머니들에 비해 경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주여성 어머니들은 아

이 옷을 스스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질병예방영역이 높았던 반면, 청결위행영역, 치아관리영역

Table 4.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86)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hild rearing practices				Parenting efficacy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r)	20-24 yr ^a	39.81±6.94	0.975	.379		71.81±9.29	6.395	.002	a>c
	25-30 yr ^b	41.60±5.67				66.67±14.27			
	≥31 yr ^c	40.67±6.09				64.78±12.04			
Nation	Vietnam ^a	39.57±6.14	4.443	.005	c>a,d	69.59±11.65	2.951	.034	a>d
	Philippine ^b	41.16±7.07				66.22±16.11			
	China ^c	44.50±4.61				70.80±9.82			
	Others ^d	39.66±7.59				63.67±10.02			
Marital period (yr)	1-5 ^a	40.83±6.72	0.257	.774		69.43±11.14	5.223	.006	a>b
	6-10 ^b	40.08±6.75				62.44±11.80			
	≥11 ^c	40.05±6.49				65.60±16.04			
Education	Elementary school ^a	40.89±4.68	0.414	.743		71.63±8.07	1.411	.241	
	Middle school ^b	39.90±7.75				66.32±11.65			
	High school ^c	40.39±6.99				67.96±11.51			
	Collage or university ^d	41.41±6.21				66.09±14.93			
Children	1	40.85±6.63	0.223	.800		68.17±12.36	1.458	.235	
	2	40.20±7.12				68.26±12.75			
	≥3	40.10±6.07				60.78±8.40			
Age of first child	1-12 M ^a	40.00±7.40	0.745	.526		68.18±11.85	2.840	.039	b>d
	13-36 M ^b	41.80±4.99				71.20±10.53			
	37 M-7 yr ^c	40.31±7.13				66.00±12.09			
	≥8 yr ^d	40.27±7.04				64.36±13.43			
Experience of parenting	Yes	40.97±6.76	0.599	.705		70.34±11.65	2.449	.964	
	None	40.37±6.63				65.94±12.17			
Experience of parenting education	Yes	41.13±7.04	0.765	.874		67.28±13.22	0.313	.340	
	None	40.34±6.49				67.87±11.58			
Korean language ability	2-10 ^a	37.86±8.03	5.782	.004	c>a	63.36±11.95	4.199	.016	c>a
	11-14 ^b	40.82±6.58				68.01±10.08			
	15-20 ^c	42.34±4.93				70.35±14.37			

Table 5. Correlation of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General	Health	Communi- cation	Learning guide	Moral training	Parenting efficacy
Child rearing practices	r=.157 p=.032	r=.225 p=.002	r=.261 p<.001	r=.187 p=.011	r=.215 p=.003	r=.227 p=.002
Health	r=.113 p=.124	r=.156 p=.033	r=.185 p=.012	r=.132 p=.072	r=.211 p=.004	r=.172 p=.019
Nutrition	r=.118 p=.108	r=.195 p=.008	r=.189 p=.010	r=.183 p=.012	r=.139 p=.058	r=.178 p=.015
Clothing	r=.011 p=.885	r=-.006 p=.938	r=.078 p=.291	r=-.040 p=.586	r=.013 p=.856	r=.013 p=.862
Safety	r=.028 p=.704	r=.163 p=.026	r=.152 p=.039	r=.059 p=.423	r=.100 p=.175	r=.100 p=.174
Development	r=.162 p=.028	r=.166 p=.024	r=.231 p=.002	r=.218 p=.003	r=.163 p=.026	r=.209 p=.004
Education	r=.141 p=.056	r=.163 p=.026	r=.165 p=.024	r=.106 p=.151	r=.132 p=.073	r=.159 p=.031

의 실천도는 낮았던 Jeong (2009)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건강관련영역 중 “예방접종 실천”과 “아이가 아프면 병원이거나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는다”에 대한 문항은 실천율이 매우 높았으나, 위생청결관련 문항과 치아관리문항의 실천율은 낮

았다. “한번 사용한 우유병은 깨끗이 소독한다”, “외출 후 아이 손 닦기”, “하루 3회 이 닦기”는 실천율이 다른 문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이 결혼이주여성 양육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복통이나 몸의 통증 시 손으로 문질러 준다”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양육행위에 대한 실천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는데,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양육행위는 타문화권에서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안전영역에서 국외연구에서 “항상 카시트를 사용한다”가 94.6%인데(McLearn et al., 2006) 비해 본 연구대상자들은 “아이를 안고 차의 조수석에 타지 않는다”의 실천율이 69.4%로 매우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어린이용 좌석 사용이 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국가의 실천율보다는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발달영역에서 가장 실천율이 낮은 “하루 2시간 이상의 TV시청을 하지 않는다”의 실천율은 61.3%로 McLearn 등(2006)의 연구

대상자의 실천율 6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lores 등(2005)의 흑인 가정 아동의 평균 TV 시청시간 2.4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매일 책 읽어 주기” 실천율도 69.9%로 낮았는데, 외국의 경우 68.5%, 61.3%보다는 높아 아동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정해진 생활습관을 3가지 이상 따른다”의 실천율이 76.3%로 나타난 반면, 외국의 경우 64.4%로 본 연구 대상자들에 비해 낮아 본 연구대상자들이 좀 더 엄격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 중 하위영역에서는 학습지도 능력과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낮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이 낮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Lee, 2004)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이주여성보다 첫 아이가 8세 이상 학령기 아동인, 나이가 많고 결혼기간이 긴 이주여성에게서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Kim (2005)의 유아기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지만, Seol 등(2005)은 5세 이상 자녀를 둔 이주여성은 자녀의 양육보다는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가 취학아동일 경우 학습지도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고, 어머니로서의 능력이나 지식, 행동을 측정하는 전반적인 양육능력 효능감도 낮아진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양육효능감을 갖게 되면 아동의 발달과 부모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며(DesJardin, 2003),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황에 따라 보다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일관된 양육,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Jeong, 2009; Mondell & Tyler, 1981; Moon, 2005)와 일치한다. 따라서 영유아기 양육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학습지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구체적인 양육행위의 특성과 양육효능감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양육행위 6개 영역 중 가장 실천율이 낮았던 영역은 의복이었고, 그 다음 교육과 발달 순이었으며, 출신국가와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중심으로 기후환경 및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의복, 교육, 발달 영역의

교육적 강화가 필요하겠다. 양육효능감 5개 영역 중에서는 학습지도능력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의사소통과 훈육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출신국가, 나이, 결혼기간, 첫아이 연령, 한국어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이고, 한국어 실력이 낮은 어머니일수록 학습지도능력 및 훈육,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따른 양육효능감이 낮으므로 영유아 양육교육프로그램 외에도 학령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1세부터 13세까지의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양육행위를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첫째, 국가별 양육행위에 대한 질적 연구와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과 한국여성 간의 양육행위 비교연구를 추후연구로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Ahn, J. Y. (2000).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Bigner, J. J. (2005).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7th ed.). New York, NY: Prentice Hall.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ume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NY: Basic Books.
- Choi, H. S., & Chung, O. B. (2001). The development of an inventory for measuring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3), 1-15.
- DesJardin, J. L. (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The Volta Review*, 103, 391-409.
- Flores, G., Abreu, M., & Tomany-Korman, S. C. (2005). Limited english proficiency, primary language at home, and disparities in children's health care: How language barriers are measured matters. *Public Health Reports*, 120, 418-430.
- Han, J. E. (2007). *The effect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child rearing efficiency of immigrant mothers for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Han, K. S. (2008). *The main cause which effect to the fostering stress of the female married immigra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Hyun, K. S. (2008). *Effect of conflict and upbringing attitude of internationally married couple on children's maladjustment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Jeong, N. O. (2009). Influence of parents's parenting efficacy on

-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5, 236-244.
- Ji, E. J. (2007).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 temperament on behavior problem in children-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women and Philippine women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Kim, D. H. (2008).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D. H., Kim, S. Y., & Shin, H. J. (2007).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ily and Culture*, 19(3), 53-78.
- Kim, M. S. (2005).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The case of those with preschoolers and school-ag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S. J., Kang, K. A., Yun, J., & Kwon, O. J. (2007). Development of a tool to measure health promotion behavior for infants & todd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13, 21-32.
- Kim, Y. J. (2006). *Survey on marriage immigrant family and strategy for their long-term support in Chungnam*. Gongju: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 Koniak-Griffin, D., Logsdon, M. C., Hines-Martin, V., & Turner, C. C. (2006). Contemporary mothering in a diverse society.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35, 671-678.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08, December 31). *Statistics of marriage immigrants by nations*. Retrieved February 18, 2009, from <http://www.immigration.go.kr/>
- Lee, C. J., Han, A. R., Jung, K. H., & Kim, H. J. (2006, April 4). *In 2020, one third of infant will be Kosian*. *The JoongAng Daily*. Retrieved February 18, 2009, from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50434
- Lee, J. S. (2007). A study of childcare and education, fathers' childcare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2(6), 21-42.
- Lee, S. M. (2004).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relations maternal social support, parenting efficacy, and the mothers' aspiration of their children's attai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 Y. (1998). A concept analysis of the rear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4, 76-85.
- Leem, Y. S., & Hyun, O. G. (2002).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1), 23-37.
- McLearn, K. T., Minkovitz, C. S., Strobino, D. M., Marks, E., & Hou, W. (2006). The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others' parenting practices with young children: Implications for pediatric practice. *Pediatric*, 118, 174-182.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Moon, H. J. (2005). Predictors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 139-149.
- Seol, D. H., Kim, Y. T., Kim, H. M., Youn, H. S., Lee, K. K., Yim, G. T., et al.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New York, NY: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Tseng, V., & Fuglini, A. J. (2000). Parent-adolescent language use and relationships among immigrant families with east asian, filipino, and latin american backgrou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465-477.